

으나 구강피부 타액루는 없었고, 그의 특기할 만한 합병증은 없었다.

6) 국소재발 경부재발 및 원격전이는 각각 2례에서 관찰되었다.

7) 육종 2례를 제외한 편평상피암 30례의 2년 생존율은 79%였다.

— 22 —

성문상부암의 임상적 특성 및 치료성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찬우 · 정광윤 · 최종욱

성문상부암은 후두 점막을 따라 하인두나 구인두를 침범하거나 전후두개강(preepiglottic space)이나 부성문강(paraglottic space)을 침범하여 후두연골 혹은 후두 주위구조를 침습하여, 병기가 진행된 후에 발견되거나, 점막하 임파조직이 풍부하여 초기에 경부전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경부전이가 없는 경우도 병리조직학적으로 임파전이절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원발병소와 경부임파절을 포함한 포괄적인 치료를 시행하나 성문암에 비하여 그 예후는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성문상부암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6년간 치험한 후두암 45례 중 성문상부암 24례(남녀비 2.4 : 1, 평균연령 56.7세)의 임상적 특성 및 치료성적을 분석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24례중 제 2 병기가 6례(25.0%), 제 3 병기 6례(25.0%), 제 4 병기 12례(50.0%)이었으며, 원발부위는 설골상부 13례, 설골하부 11례이었다.

2) 전 레에서 수술 및 술후방사선치료를 하였고, 1례에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3) 임파전이절이 없었던 14례중 13례에서 예방적 경부청소술(elective neck dissection)을 시행하여 4례(30.8%)에서 병리조직학적인 경부임파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파전이절이 있었던 10례(N1 1례, N2 5례, N3 4례)는 근치적, 경부청

소술(radical neck dissection)을 시행하였다.

4) 추적관찰결과 무병생존례가 16례(66.7%), 유병생존례 2례(8.3%), 유병사망례 5례(20.8%)이었다.

5) 총 24례중 재발한 경우는 원발병소 4례(16.7%), 경부임파절 3례(12.5%), 이차암 3례(12.5%)이었다.

6) 총 24례의 치료결과 3년 생존율이 58.4%, 5년 생존율은 25.0%이었다.

이상의 성적에서 성문상부암은 경부임파전이기가 많고 이차암의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아, 치료전 침범범위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포괄적인 치료로 그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23 —

하인두암의 치료성적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 · 성명훈 · 정원호 · 유원석

하인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두경부에 발생하는 각종 종양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종류의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왔으나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저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1년 8월까지 본원 이비인후과나 내과, 치료방사선과에 내원한 하인두암 환자중 수술 또는 항암약물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추적이 가능하였던 30례를 대상으로 복합치료군(항암약물요법+방사선요법)과 수술 및 술후 방사선요법을 받은 2개의 군으로 나누어 치료성적을 비교하여 보았다. 복합 치료군(12명)의 평균 추적기간은 18.9개월 이었고 수술 및 술후 방사선요법군(12명)의 평균 추적기간은 20개월이었다. 복합치료군은 수술 및 술후 방사선요법군과 비교 시 유사한 생존률을 보여 주었다. 방사선요법 혹은 항암약물요법만을 단독으로 시행한 6례는 수술을 거부하였거나 수술하기에 전신상태가 좋지않은 경우였으며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